



# 建築家不器

安 秉 義

김중업합동건축연구소

나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다. 내 아버님 책, 내 형님 책 등, 내 주 위에는 千卷을 넘는 책이 있어 그중 재미있을 만한 것을 골라 읽곤 했는데 聖書를 처음으로 대한 것은 아마도 중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 썸이었다. 어느 福音인지 지금 기억은 없지만 그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야 물론이지, 짬도, 버터도, 그리고 고기도 먹어야 할터이니. 예수도 이런 뻘한 이야기를 한단.

그 구절을 읽었을 때 갖었던 느낌이다.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일이지만, 그 빵만으로 사는 生活이, 마음이 텅비고 허전하게 느껴져 論語 네권과 슈바이처傳記를 구해 지난 3, 4 개월 동안 讀書三昧에 파묻혔다.

책은 多讀보담도 精讀이다. 한달에 수백권을 헤아리는 新刊이 나오는데 그 많은 책의 몇분의 일도 못읽을 뿐더러, 時間과 책값만 낭비했다고 후회스러울뿐, 참으로 感銘을 받을 만한 책은 매우 드물다.

그런 점에서 古典은 安心이 된다. 古典이란 歲月이라는 채를 거처서 살아남아 그만한 存在價值가 있기 때문이겠다.

책은 精選한 古典을 두고두고 읽어야 하는 것 같다. 옛날에 읽은 것을 다시 훑어보면 그때마다 感懷가 다르고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일도 깨달은 바가 있고 가슴에 와 닿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다. 그동안 人間的으로 成長했구나 하고 기쁘기도 하며 古典의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맛에 讀書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論語는 孔子가 돌아가신 후 그 弟子들이 스승의 말씀을 옮긴 것으로 2千年 이상이나 지난 까닭에 그 말씀의 解釋도 여러 學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해설이 다른 네권의 論語를 두루 훑어 보았다.

孔子가 나이 七十을 넘어 弟子들을 이끌고 泰山에 올라 지나온 一生을 돌이켜 본 말 중에 「四十而不惑」이라는 글이 있다. 四十代라는 代名詞로 쓰일 만큼 이 不惑이라는 말은 日常用語가 되어 버렸는데 三十에 人生의 方向에 대해 마음을 굳혔으나 孔子程度의 聖人도 四十에 이르러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되었으니 不惑이란 역시 힘든 境地인 것 같다. 不惑이란 한마디로 말해 철이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現代처럼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유혹이 많은 時代에서는 죽어서 재가 될 즈음에야 비로소 不惑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不惑, 나는 이말이 무척 좋다. 간결하고 表現이 힘차며 내가 아직도 그 境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좋아한다. 불혹은 역시 不惑이라고 써야 제맛이 난다.

表意文字인 漢文만이 갖일 수 있는 長點이며 한글만을 쓰자는 國文學者들에게 論語 열번 읽어본 다음 이야기 하자고 提案하고 싶다.

孔子가 耳順의 境地에 이른 것은 六十인데 이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나 自身은 不惑은 이루지 못한 주제에 耳順에는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되니 말이다. 耳順이란 자기 생각만을 내세우지 않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孔子는 아마도 지나친 理想主義者였던 까닭에 쉽사리 自己意見을 굽힐줄 몰랐지만, 올바른 政治에 參與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오랜 세월 流浪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사이에 남의 意見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寬容을 몸에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耳順은 民主主義의 바탕이다. 自己 뜻을 내세우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理解하는 속에 民主主義는 싹튼다. 한동안 黑白論爭이 한창인 때가 있었지만 世上 일은 그렇게 黑白으로 갈라질 정도로 단순한 것은 아

니다. 어린이들은 T.V.에 나오는 映畵를 보면서 곧 잘 묻는다. 어느 쪽이 좋은 사람이고 어느 쪽이 나쁜 사람 이냐고. 어린이는 자라면서 黑白으로만 結論지을 수 없는 여러가지 일에 부딪치게 된다.

거창하게 民主主義를 들먹일 것도 없다. 耳順은 우리들이 建築設計하면서 자주 부딪치는 문제다. 한 3年동안 美國에서 살면서 자그마한 호텔을 設計했을 때의 經驗을 나는 잊을 수 없다. 白人인 設備, 電氣 기술자와 構造計算家, 그리고 나는 6 개월 동안 서로 意見을 내세우고 相議하고 양보도 하고, 때로는 고집도 부리며 호텔 設計를 끝마쳤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이에 서로 엇갈린 意見은 하나로 융합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

耳順은 또한 友情을 더욱 깊게 하고 행복한 家庭生活의 열쇠이기도 하다. 서로의 性格과 理想과 자라온 過去가 다른 두 存在가 보다 나은 하나의 結晶으로 이루어지는 소금이기도 하다.

무슨무슨 理事會나 會長選舉 때 느끼곤 하는 일이지만 演士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내세울 意見에 골몰한다. 그리고는 마침내 票의 對決, 두개의 派閥의 힘의 싸움이지 하나로 뭉친 團體의 빛나는 歷史는 아니다.

우리들이 뽑은 國會議員들은 요새 한창 앞으로 닥아올 選舉에 대비하고 自己의 當選과 自己黨의 執權에 눈이 새빨개져 있는 것 같다. 어느 國會議員 하나도 이나라의 主人인 우리 國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다.

耳順, 이말을 먼저 國會議員들에게 주고 다음으로 우리 建築家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다.

論語란 現代生活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리타분한 말로 가득찬 책이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읽어 볼수록 깊은 뜻을 간직한 글이 많고 우리의 現實에 그대로 들어 맞는다. 그렇기에 二千年 이상을 살아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 옛날의 漢文이라 解說이 충분치 않으면 그 참뜻을 이해하기 힘들어 알기 쉽도록 풀이한 좋

은 解説冊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 예를 들면 君子不器.

器란 그릇이라는 뜻으로 말하자면 재간있고 기술이 뛰어난 專門家라고 풀이된다. 재간있는 사람은 자기의 才能을 뽑내고 그 才能만으로 살려고 한다. 물론 그 才能 자체는 자기자신의 立身出世에는 도움이 되지만 남을 돕지는 못한다. 그것은 마치 제사 때 쓰이는 그릇이 그릇의 역할 밖에 못하는 것과 같다. 不器란 말은 君子는 專門家, 才能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專門家에만 그치지 않고, 넓은 教養을 갖추고 德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君子라는 말 대신에 建築家不器하면 設計事務室에 걸어놓고 싶을 名言이 된다. 建築家로서 갖추어야 할 學識, 才能·技術 등에 통달해야 하지만 그 기술을 통해 남에게 奉仕하는 정신, 建築家로서 이 世上에 살아 있는 目的—말하자면 實存의 意識과 人間으로서의 德이겠다.

오래 전에 내집을 지었을 때 平面과 立面을 2 십분의 1로 設計했는데, 매우 자세한 까닭에 工事하기 편하고 정확했으며 자재의 낭비도 없었다. 그러나 設計를 부탁 받은 남의 집은 으레히 5 십분의 1로 그리곤 하여 나는 그때 얼굴에 불이 날 정도로 罪責感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다. 남의 집을 내집처럼 아끼고 다루는 것, 이것은 知識이 아니라 孔子가 말하는 不器, 바로 그것이다.

언젠가 靑寫眞으로 프린트 한 르·플뤼케의 산디갈의 政府庁舎 立面圖를 보았는데 놀랍게도 스케일이 5 십분의 1로 길이 2미터 정도의 特大版이었다. 오피스빌딩의 立面을 5 십분의 1로 그리는데, 그의 建築家로서의 設計姿勢에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졌다. 이것을 知識이 아니라 그의 道德觀의 所産이다. 나도 그를 본받으려고 중요한 디테일은 으레히 1 : 1로 現寸圖를 그리곤 한다.

孔子는 뜻을 올바른 政治에 두었으므로 論語에는 政治에 대한 글이 많이 나오는데 葉公이 孔子에게 政治에 대해 물어본 대목이 있다. 孔子가 대답하여「人間이 옳은 까닭은 人間이 서로 사랑하는데 있다. 나라의 法도

法인 까닭에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人間과 人間의 關係를 사랑이 가득찬 것으로 할 때 많이 옳은 것이다.」

法の 精神을 사랑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에 그의 偉대한 精神을 엿볼 수 있다. 法이란 罪人을 다스리고 法の 무서움 때문에 惡을 犯하지 않도록 하는, 말하자면 반협박적인 것이 아니라 이 世上에 善이 널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肯定的인 角度에 서야 하지 않을까.

이야기는 좀 빗나가지만, 聖書에 대해 느끼는 나의 不滿은 무엇무엇을 하지 말라는 구절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특히 十戒銘은 그 으뜸이다. 나같은 性格으로는 도저히 오금을 펴 수가 없다.

孔子의 法에 대한 定義에서 생각나는 것은 建築과 관계되는 法, 規定, 條例 그리고 制度들이다.

建築行政에 관한 法 또한 그 根本 精神은 어떤 것이 不法이며 이를 制度上으로 어떻게 막으며 어떤 處罰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建築藝術을 이땅에 꽃피우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바탕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한 예를 들어보자.

美觀審議라는 것이 있어 특정 地域은 設計를 規制하고 있다. 규정상 심한 것은 이웃 建物과 나란히 모양도 너무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더욱 우수한 것은 配置의 例까지 들먹인다.

그렇게 규제해야 할 根本的인 哲學 理念은 어떤 發想에서 나온 것인지 도저히 理解가 가지 않는다. 近來에 와서 서울의 建物들이 表情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전에는 建築主들이 돈이 없어서 싸구려 집 밖에 원하지 않았으니 두부모양의 建物을 지을 수 밖에 없었고 또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까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建築家들이 表情있는 建物을 設計할 能力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建物을 지을 수 있는 能力이 있다.

巴리는 6층 이상 높이를 制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싱가폴은 都市에 表情을 주기 위해 이웃 建物과 같은 모양으로 짓는 것을 규제하고 서로

個性이 다른 것을 권한다.

뉴욕에 있는 「라이트」의 古蹟하임 美術館 옆에는 아주 오래된 建物이 있는데 라이트는 이웃집 같은 것은 아랑곳 하지 않았기에 그 傑作을 남길 수 있었다.

法이나 規定이란 사랑이 담겨 있고 創造의 意慾이 담겨 있어야 하고 간단할수록 좋고 우리들이 自由를 될수록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랜동안 발이 묶였던 夜間通行禁止가 풀린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中高校生들의 校服自律化도 이제는 定着되었으며 行政의 簡素化, 輸入의 自律化傾向 등, 살만한 世上으로 즐달음 치고 있는 氣分이 드는 요즈음인데 建築界만은 아직도 옛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惡法中の 惡法이 合同設計事務所制度겠다. 이 制度을 좋아하는 建築士가 과연 몇이나 있는지 한번 投票에 부쳐 보았으면 좋겠다. 누구를 위한 法인가. 이것은 後進國에나 있는 낡은 官僚主義의 所産이다. 그 까닭은 제대로 된 나라치고 世界 어느곳에도 없으니 말이다.

「혜겉」이었던가.

人類의 歷史는 自由를 向해 걸어간다고 말한 것은.

朝令暮改란 建築에 관계되는 法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왜 그렇게 자주 바뀌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어느 會員 한분이 쓴 글 중에 아무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복잡한 法이라고 했는데 百퍼센트 同感이다.

나는 지난 몇달째 호텔하나 設計하고 있지만 가장 골치를 썩고 있는 것이 駐車場法規 때문이다. 약 400室 규모의 호텔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駐車스페이스가 220台 썩이나 필요할 것 같지 않는데(비록 10년 후라도 말이다.) 法規上 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쓰지도 않을 駐車場을 法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싼 工事費를 들여야 한다면 필경 이것은 惡法人 셈이다.

雪上加霜으로 駐車스페이스의 길이

는 용서없이 6 미터는 있어야 한다. 駐車 여유를 1 미터 본다손 치더라도 길이 5 미터나 되는 高級車가 과연 우리나라에 몇대나 될까. 그리고 車는 점차 小型化 되어가는 판국이니 말이다. 이것은 美國 수준인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商業建物에서는 全駐車台數의 10퍼센트는 小型車 치수로 설계할 수 있도록(말하자면 6 미터 미만) 되어 있다. 그러니 世界에서 가장 큰 車를 좋아한다는 美國보다도 嚴한 셈이다.

하는 수 없이 法의 虛點을 찾아 駐車台數를 줄일 궁리를 하게 된다.

法은 보통사람들이, 보통의 良心을 가지고 지킬만한 것이어야 한다. 順理에 따르고 日常習慣과 경우에 따르고 그리하여 지키기 쉬운 것이 되어야 한다. 지킬 수 없고 지키기에는 억울한 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것은 不法者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法은 萬人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建築士 資格試驗이 왜 그렇게 까다롭나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히 高等考試 급이다.

이것은 資格試驗에 지나지 않는다. 資格考試란 한마디로 말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될수록 많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나라의 主權을 가진 國民의 한사람이 工夫를 한 후에 設計事務所를 차리겠다는 것을 그렇게 심하게 규제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나라 國民인가.

나 自身을 포함해서 지금 開業하고 있는 建築士들이 다시 그 資格試驗을 치른다면 果然 몇사람이나 합격할 수 있을까?

美國 남가주에서는 大學卒業한 경우 5年後에 應試資格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合格率은 5 : 1 정도가 되도록 수월한 것은 그것이 資格試驗인 까닭이다. 될수록 많은 建築家가 될수록 좋은 作品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닦아주는 것이 建築士法의 方向이 아닐까.

孔子의 政治 이야기가 다소 빛나간 것은 아마 언제나 이러한 일들이 내 마음 속에 응어리져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펜을 든 김에 또 하

나. 1년에 한번씩 바쁜 사람을 모아놓고 二泊三日의 建築士研修, 果然 얻는 게 많을까 잃은 게 많을까.

平生教育, 좋은 이야기다. 그러나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은 工夫 안할 自由쯤 있는 게 아닐까. 더러 낮모르는 會員을 만나게 되고 일에 지친 몸을 教育 平계삼아 쉬는 것도 좋은 일이겠다. 그러나 個人의 自由를 尊重하는 것은 이보다 앞서서 문제가 아닐까. 建築士法에는 研修를 받도록 規定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글썽, 그때부터 오랜 歲月이 지난 지금 이것 또한 自律化 시키면 어떠할지.

나는 法이란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 義務는 될수록 적게. 自由는 될수록 많이.

詩經의 精神을 한마디로 말하면 思無邪에 그친다고 孔子는 말했는데, 詩의 本質을 俗되지 않은 純粹한 感情이 나타난 것으로 본 것이다. 詩經이라는 말 대신에 藝術이나 또 建築을 써도 뜻은 같아지겠다. 純粹한 感情이란 말하자면 自然스러운, Liberal한, 엄매이지 않는 마음의 姿勢를 말한다.

自己自身에 집착하지 않으며 때로는 나 自身을 멀리 떼어놓고 바라보는 巨人의 눈을 가지며 克己하는 不屈의 精神과 明確한 判斷力, 돈과 地位와 名聲에 엄매이지 않고 創造力이 풍부한 그러한 것을 Liberal하다고 말한다. 가장 가까운 말로는 아마 自由라는 뜻이겠지만 결코 奔放하다는 뜻은 아니다. 차라리 엄매이지 않는, 그러나 克己하는 精神이다. 이러한 姿勢야말로 올바른 創作의 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내집 거실에는 天衣無縫이라는 나 무관자에 刻한 큼직한 글이 걸려 있다. 靈怪錄이라는, 時代도 著者도 알 수 없는 옛날 中國의 책에 나오는 글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仙女의 옷을 보니 실을 꿰맨 자국이 없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詩나 文章 등이 무리한 흔적없이 잘되어 있다는 뜻이다. 요새는, 自由로운, 奔放한, 꾸밈이 없는 등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글을 무척 좋아한다. 아직 그러한 境地에 이르지 못한했으나, 이글을 되새기며 아무 것에

도 엄매이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으로 作品을 構想한다.

世上을 떠들석하게 한 天文學의 不正事件, 쌓아올린 名譽와 地位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榮과 辱, 이러한 世上에 살다보니 創造의 길만을 걸어온 내 生涯가 매우 多幸스럽다고 느껴진다. 남다른 榮도 없었지만 辱도 없었으니 말이다.

權慾·名譽慾 그리고 金錢慾은 자칫하면 남에게 폐를 끼치기 쉽지만, 創造慾만은 남을 害치지 않고, 다만 도움을 줄 뿐이다.

孔子는 五十에 知天命이라고 했는데 德으로 다스리는 政治를 해볼려던 理想을 이루지 못하고 人間의 能力의 限界를 느낀 것을 말한다. 그 後에는 餘生을 弟子들의 教育에만 힘썼다.

建築家의 知天命은 언제쯤일까. 心理學者의 말에 의하면 天賦의 素質이 가장 要求되는 音樂은 二十代에 빛을 보기 시작하고, 文學, 美術 등이 四十代, 分析과 綜合하는 能力이 要求되는 政治家와 建築家는 五十代 이후에 빛을 發揮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아마도 五十耳順, 六十知天命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즈음해서 不惑쯤 되지 않을까.

## 커뮤니케이션 건축. 電子的 커뮤니티. 自由時間都市

未知의 새로운 건축  
존재 형식을 갈망하면서 —

朴 研 心  
중앙건축설계연구소

20세기 末의 우리는 꽤나 흥미있는 時間帶에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 21세기에 近接한 지금은 고도의 기술진척과 산업사회의 가족화가 우리사회의 가치관의 변위조차도 뒤바뀌 놓고 있으며 그 변수의 종류도 다양화 돼가

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를 겨냥해서 삶의 양식과 심미성에 관해 「허버트 리드」는 다음과 같은 비판론을 편다.

「詩는 지금도 벌써 古代의 것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릴 것이다. 小說도 오늘날 이미 오락으로써는 옛날의 면목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고 作家라고 한다면 텔레비전을 위한 각본 작가만이 남게 될 것이다. 예술의 스타일 같은 것은 아나크로니즘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건축물의 장식품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中略 — 가벼운 형식의 오페라는 오락성이 있기 때문에 잘아 남을 것이다. 베토벤, 바그너, 스트라빈스키는 잊혀져 버릴 것이다. 조형예술에 관해서 말한다면 오늘날의 액션페인팅 이후에는 그것이 살아 남을지 의문이다.

조형예술에는 숙련이 필요한데 이 숙련이란 그렇게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술학교는 벌써 가르친다는 시늬조차 하는 것을 그만 두어버렸다. 예술에 있어 미래는 장미빛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라 지칭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 날 것이다. 예술가란 말을 쓰고자 하는 것은 오락산업이며 화려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어디를 보나 빛이 넘쳐 흐르고 있으나 사람의 마음만은 어둡다는 것은 최후의 문명이 무너지는 소리조차 끊임없이 소음 속에 꺼져 버려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술 비판론 내지는 文化 비판론에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현실적인 통계도 있어 보인다. 문화생활에 관한 통계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자유시간」의 측정 및 가정의 소비생활 가운데 포함되는 여가경비의 측정결과를 보면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 지수에 대한 조사가 밝혀주고 있는 바는 많은 나라에 있어 대중들의 문화생활은 이미 극장, 음악회, 영화관, 미술관, 도서관의 방문과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문화활동으로 메워져 있지 않고 오히려 가전 전자제품을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과 기업의 제품에 의존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술의 개념은 앞으로도 더욱 「세속화」 「민주화」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무엇보다도 매스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의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이미 예술의 모든 장르 속에 파급되고 있으며 미세하나마 매너리즘으로 간주된 패턴추매를 선택한 미국 건축가 「로버트 벤튜리」에서 그 조짐을 볼 수 있다.

미국 상업풍토 건축 및 그것의 자기發現인 상업街的 매너리스트적 투영과 팝문화와의 참여에서 그것을 실현시켰다. 그는 몇번이고 「混成物」 개념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랭클린 데라노 주느벨트」 기념관에서는 건물을 景觀에 덧붙였다. 「길드 하우스」의 옥상에 붙여진 텔레비전 안테나 「노오드 칸톤시청사」의 정면에 게양된 거대한 旗, 全美口 풋볼 기념관에 높이 솟은 큰 광고판은 「커뮤니케이션」 建築의 기대할만한 시사를 던져 준다.

時間과 空間, 나와 이웃의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최단거리를 현실적으로 구현해 준 電子의 커뮤니티는 20세기의 맑은 시간을 메꿀 수 있었던 가장 進歩的인 매체가 되어 줄 것이며 場所개념은 불분명하게 될 것이나 한편으로는 도시의 감수성을 배경으로 한 강렬한 메시지를 발산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은 새로운 파도일 수도 있고 산업혁명일 수 있는 이런 조류는 생활패턴에 새로운 획타가 되어 질 것이다.

20년 후의 인구·정치·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파생되는 생활상의 변화는 余暇시간이 今後 노동시간에 비해서 絶對的·相對的으로도 비약적인 증가를 하게 되고 여가의 증대와 가치관의 다양화는 이의 창조적인 사용방법을 리크레이션 등이나 지역사회의 참가를 통하여 확대시킨다.

自由時間의 양적인 變化, 自由時間의 생활 등의 공간적인 配分 등으로 개방된 自由時間都市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技術은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점점 조직화된 사회에 빠져들고 있으며 그것들은 근대화의 부정적인 「유해」한 결과들이고 이는 곧

조직된 삶의 비인간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은 스스로 사람과 사회와 자연으로부터의 사람의 버성김 (人間疎外) 이라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에 의한 개인의 속박, 강제, 통제라는 것과 그리고 갖가지 불평등화에 의한 삶의 기회의 불균형이라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의 인간적인 어프로치는 자연을 보호하고 역사를 보존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환경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것과 획일화와 조직화에 대한 人間の 固有性과 自由는 되도록이면 인간적인, 사람 中心의, 사람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도록 그 원리를 찾아야만 한다.

예술 자체는 인간을 객관적 관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디어에 의존한 관중을 다시 인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성과 선택의 문제를 함축하여야 한다.

도시화에 의한 지방 도시와의 격차에서 오기 쉬운 국민적 괴리감은 넓은 지역사회에서 개방된 사회로의 추구하고 剛구조 사회에서 柔구조적 사회로의 환원을 통하여 다차원의 시스템으로 출발하는 넓은 체험이 필요하게 되었다.

건축공간의 미래지향적 구성은 공간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정의가 유도될 수 있어야 한다. 差異와 類似的의 사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오늘날 새로운 건축존재형식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있다.

1920년대 제 2세대 건축가가 보여준 작품은 그들이 독립한 자기의 확인을 결사적으로 추구해온 표적이었다. 「르 꼬르비제」에 의한 「도미노주택」, 「미스 반 델 로에」의 「그라스의 마천루」이래로 우리들은 균질된 공간의 구상에 매료되어 왔다. 세계가 다양해 짐에 따라서 다양한 空間이 混在돼 있는 것으로 부터 질서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의도는 본질적으로는 混成系라는 새로운 가치관의 도입을 의미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다원론적 측면에 바탕을 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건축의 諸경향이 대변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것에 食傷해 있으며 보다 정확한 미래를 점치고 그리고 그것에로의 탈출을 꿈꾸기도 하는 것이다.